

상카 전통의 계보와 교의서의 요건: 『육띠디뻬까』(Yuktidīpikā) 역주 (1)

강형철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함형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I. 『육띠디뻬까』에 관하여

본고는 상카학파(Sāṃkhya)의 논서인 『육띠디뻬까』(Yuktidīpikā)의 역주를 포함한 번역연구의 첫걸음이다. 『육띠디뻬까』(약 6~8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¹⁾는 상카의 현존하는 최고(最古) 문헌인 『상카까리까』(Sāṃkhyakārikā)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상세한 주석서이다.

1) 『육띠디뻬까』의 연대에 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는 함형석(2016b) pp. 8-9, 각주5 참조.

『상카까리까』에 대한 현존하는 대부분의 주석서들이 본문에 사용된 표현들 각각을 해설하는 전형적인 지구풀이식의 주석에 머물러 있는 반면, 『육띠디빠까』의 경우 『상카까리까』의 각 구절마다 불교를 비롯한 다른 학파와의 논쟁을 소개하면서 상카의 철학체계를 옹호하는 논리를 구축하려 시도한다. 『육띠디빠까』는 상카 연구에 있어서 고대 상카 스승들의 견해들을 실명을 통해서 자세히 전하는 유일한 문헌이며, 나야(Nyāya)전통과 구별되는 상카의 논리적 전통의 체계를 전하고, 다른 문헌에서는 모호하게 설명되는 상카의 철학적 쟁점들을 명확히 드러내는 문헌이다. 특히 『육띠디빠까』에 남겨진 수많은 논쟁의 기록 중에는 다른 학파의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은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 점은 『육띠디빠까』의 내용이 상카 연구뿐만 아니라 불교(Buddha)·미맘사(Mīmāṃsā)·나야 등 다른 학파의 연구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육띠디빠까』에 대한 연구가 현재 학계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6~8세기 인도철학 각 학파 간의 논쟁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자들은 『상카까리까』에 대한 본격적인 주석 직전의 「서문」(Upodghāta)의 역주인 본고를 시작으로 『육띠디빠까』에 전체에 대한 정확한 번역과 상세한 해설을 국문으로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본 연구자들의 고전기 상카철학에 대한 관심뿐 만아니라 인도철학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 5세기~8세기의 인도 지성계를 연구하는데 있어 『육띠디빠까』가 가지는 중요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육띠디빠까』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기존 학계의 연구성과를 이곳에서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특정한 주제나 어구에 관련된 학계의 의견 혹은 논쟁은 관련된 문장을 번역하면서 각주에서 다룰 것이다. 다만 본격적인 역주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존의 『육띠디빠까』 교정본들과 번역서들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교정본

『육띠디빠까』 원문의 교정본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 ① 차크라바르티본 (1938),²⁾
- ② 판데야본 (1967),³⁾
- ③ 베즐러&모테기본 (1998).⁴⁾

이 중에서 ① 차크라바르티본은 당시 푸네(Pune)의 반다카르 동양학 연구소(Bhandarkar Oriental Research Institute)에 소장된 단 하나의 사본을 저본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⁵⁾ 문장의 탈락이나 오자가 많아서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다. 라가반(V. Raghavan)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작 논문(Raghavan 1954-55; 1957-58; 1958-59a; 1958-59b)을 통해서 많은 부분의 교정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라가반의 작업 또한 새로운 사본에 의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데야(R. C. Pandeya 1967, xii)로부터 교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② 판데야본은 라가반이 지적한 차크라바르티본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메다바드(Ahmedabad) 소재의 인도학연구소(Lalabhai Dalpatbhai Institute of Indology)가 소장한 사본 하나를 추가로 사용하여 많은 부분을 교정 및 부기하였다. 하지만 판데야본도 일부 내용의 부정확성에 관하여 당시 동일한 아메다바드의 사본을 사용했던 베즐러(Wezler 1974:435-451)에 의해서 비판을 받게 된다.

2) *Yuktidīpikā, Critically edited for the first time from Original Manuscripts*(Calcutta Sanskrit Series No. XXIII), Edited by Pulinbihari Chakravarti, Calcutta: Pulin Bihari Sapkar, 1938.

3) *Yuktidīpikā, An ancient Commentary on the Sāṃkhya-Kārikā of Īśvarakṛṣṇa*, Edited by Ram Chandra Pandeya, Delhi-Varanasi-Patna: Motilal Banarsidass, 1967.

4) *Yuktidīpikā, The Most Significant Commentary on the Sāṃkhyakārikā Vol I*, Edited by Alberecht Wezler and Shujun Motegi, Süttgart: Franz Steiner Verlag, 1998.

5) YD의 현존하는 몇 가지 사본들 각각의 형태와 특성에 대한 해설로는村上(1984a;1984b), Murakami(1987), 茂木(1995;1997), Wezler&Motegi(1998:xii-xx)가 있다.

③ 베츨러&모테기本은 새로 발견된 사본들을 포함 최소 다섯 가지 사본들을 사용하여 편집되었다. 차크라바르티本과 판테야本이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었으며, 문장의 해독을 위한 편집자의 적극적인 교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육피디빠까』 본문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이 있는 다른 문헌에 대한 추적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이는 본문에 표기되었을 뿐 만 아니라 관련된 리스트를 일람할 수 있는 상세한 부록도 권말에 제시되었다. 더불어 일부 사본에서 발견되는 난외(欄外)의 주석도 각주를 통해서 제공되어, 이전에 미지의 영역에 있던 내용 중 일부를 확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편집본에 대해서는 라이트(Wright 1999), 브롱코스트(Bronkhorst 2003) 등의 서평이 있다.

본고의 역주작업은 일차적으로 ③베츨러&모테기本을 저본으로 한다. 본고는 온전한 번역과 분석 및 해설을 시도하는 데 지향점이 있으며 새로운 편집본을 작성하는 것은 본고의 목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원문 전체를 제시하지 않으며 해석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편집본 혹은 사본의 독해를 따르게 되거나 재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각주를 통해서 원문을 표기하고자 한다.

번역서

기존의 『육피디빠까』의 번역으로는, 우선 전체에 대한 유일한 번역연구로서 쿠마르와 바르가바의 작업(Kumar & Bhargava 1990; 1992)이 있는데, 이는 판테야本을 저본으로 하면서, 그에 대한 약간의 교정도 시도되었다. 그러나 쿠마르와 바르가바의 교정과 번역은 시기적으로 베츨러&모테기本에서 보충된 문헌학적 성과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 외에 『육피디빠까』 일부에 관한 번역연구로는 『상카까리까』 제 6송의 주석을 순서대로 번역한 나카다(中田 1970; 1971; 1972; 1975a; 1982)의 연

구가 있으며, 『상카까리까』 제 6송 전반부 주석에 대해 개요(synopsis)와 함께 상세한 역주를 제시하는 시가&시다(志賀&志田 2011)의 논문, 『상카까리까』 제 5~8송과 제 28송의 주석을 번역하고 상세히 분석한 하르저(Harzer 2006)와 제 15송 주석 일부의 번역을 제시하는 아루가(有賀 1992), 제 9송의 주석을 세 편의 번역논문을 통해서 차례대로 제시하는 모테기(茂木 1986; 1987; 1988) 등이 있다. 베츨러&모테기본의 공동편집자이기도 한 모테기는 이와 더불어 『육띠디빠까』의 쟁점이 되는 단편들을 발췌한 또 다른 연작 번역논문(茂木 1978a; 1978b; 1980)도 출간한바 있다. 그 외에는 제 10송의 주석을 번역한 강형철(2013a), 제 1-2송의 주석을 번역한 무라카미(村上 1984a; 1989)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위의 연구성과들은 교정본들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저본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고, 내용의 난해함, 번역작업 자체의 특성 등의 이유로 구문의 의미가 충실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육띠디빠까』의 기존 번역에는 지속적인 보수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⁶⁾

II. 『육띠디빠까』 「서문」(Upodghāta)의 개요

『육띠디빠까』의 저자는 『상카까리까』를 크게 네 부분(prakarāṇa)로 나누고 자신의 저작을 열 한 개의 챕터(āhnikā)로 구성한다.⁷⁾ 본고에서 역주하는 부

6) 이상의 번역작업 이외에 『육띠디빠까』 특유의 내용이 중요한 쟁점으로서 인용되는 기존의 주요 연구로는 Chakravarti(1951), Chemparathy(1965), Oberhammer(1965), 中田(1965; 1975b; 1983), Wezler(1974), 中井(1981), 村上(1982; 1991), Franco(1991), 神子上(1996), Bronkhorst(1997; 2000; 2007), 有賀(2000; 2003), Kang(2006), Watanabe(2008; 2011; 2014), 近藤(2010; 2011; 2012; 2015), Kimball(2011), 강형철(2013b; 2015; 2016), Lucyszyna(2016), 함형석(2016a; 2016b) 등이 있다.

7) 첫 번째(SK 1-14), 세 번째(SK 22-45), 네 번째(SK 46-71) 부분에는 세 챕터가 할당되어 있고 두 번째(SK 15-21) 부분에는 두 챕터가 할당되어 있다. Larson&Bhattacharya(1987), p. 228 참조.

분은 베츨러&모테기本の 1:1~8:16에 해당하며, 『육띠디뻬까』의 저자는 본 부분을 본격적인 『상카까리까』 주석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붙이는 「서문」(Upodghāta)이라 명명하고 있다. 이는 『육띠디뻬까』의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챕터에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육띠디뻬까』의 저자는 전체 저작의 「서문」을 붙이고 『상카까리까』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계송에 대한 상세한 주석을 단다.

본고의 제목인 “상카 전통의 계보와 교의서의 요건”으로 표현하였듯 『육띠디뻬까』 「서문」의 내용은 상카 전통의 계보를 제시하는 서두계송(ārambhasloka) 부분과 교의서의 요건(tantraguṇa)들을 나열하고 『상카까리까』가 교의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산문 부분으로 양분되어 있다. 후반부의 산문 부분은 서두계송에서 『상카까리까』가 교의서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선언한 것에 촉발된 반론자의 질문에 대해 『육띠디뻬까』의 저자가 대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문」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 모두 역사적인 배경이 복잡하다. 예를 들어 전반부인 서두계송에 대한 분석은 강형철(2016)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전반부에서 『육띠디뻬까』의 저자는 상카(Saṃkhya) 학파의 전통을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학파를 대표하는 서적이 제시된다. 첫 단계는 전통적으로 상카학파의 개조로 알려진 까뻬라(Kapila)의 『위대한 교의서』(Mahat Tantra)가 대표하며, 두 번째 단계는 후대의 성자(muni)들이 그것을 요약한 『소책자』(Alpagantha)가, 세 번째 단계는 상카학파의 교리에 대한 반론들을 논파하기 위해 일군의 스승(ācārya)들이 『소책자』에 삽입한 ‘난해한 사유의 밀림’(viṣamās tarkagahvarāḥ)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것을 다시 축약한 이슈바라끄르슈나(Īśvarakṛṣṇa)의 『상카까리까』(Sāṃkhyakārikā)가 대표한다. 『육띠디뻬까』의 저자는 서두계송을 마무리하며 『상카까리까』가

교의서가 갖추어야 할 모든 요건들을 구비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는데 산문으로 쓰인 후반부는 한 논적이 이 교의서의 요건들이 무엇인지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후반부에서 『육띠디빠까』의 저자는 논적의 질문에 답하여 열한가지의 교의서의 요건을 나열하는 계송을 읊은 후 그곳에서 나열된 각각의 요건들을 『상카까리까』가 갖추고 있음을 『상카까리까』가 본문을 인용하며 입증한다. 이 후 별도의 요건들 셋을 더 논의한 후 『상카까리까』 독립적인 교의서(tantra)임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그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상카까리까』가 교의서로 인정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교의서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육띠디빠까』의 저자가 사용하는 기준인 “교의서의 요건”(tantraḡaḡa 혹은 tantrayukti)⁸⁾이라는 범주는 기원 전후 초반 몇 세기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학서적(*Carakasamhitā*와 *Suśrutasaḡhitā*)과 정치서적(*Arthasāstra*), 그리고 따밀어 문법학 서적(*Tolkāppiyam*)에서부터 등장하는 개념이다. “교의서의 요건”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하였고, 처음에는 32 혹은 36개의 요건들로 구성된⁹⁾ 본 개념이 어떻게 『육띠디빠까』의 열한가지 요건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개념사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는 향후를 기약하고자 한다.¹⁰⁾ 본 역주에서는 각주의 설명을 통해 『육띠디빠까』에 등장하는 요건들을 다른 서적에 등장하는 요건들과 비교하는 것 정도의 연구만을 수행하기로 한다.

8) 『육띠디빠까』에서는 ‘tantraḡaḡa’라는 명칭과 ‘tantrayukti’라는 명칭이 혼용되지만 해당 범주가 사용되는 여타의 서적에서는 일반적으로 ‘tantrayukti’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9) *Carakasamhitā*는 36가지의 교의서의 요건들을 나열하고 있는 반면 *Suśrutasaḡhitā*, *Arthasāstra*, *Tolkāppiyam*은 모두 32가지의 요건들을 제시한다. 또한 *Carakasamhitā*를 제외한 모든 서적은 각 요건에 대한 정의도 서술한다.

10) ‘Tantrayukti’에 대한 연구성과는 그리 많이 없을 뿐 만 아니라 대부분 그 개념이 사용되는 텍스트의 설명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어 이 주제에 대한 심화된 분석적 작업이 요청된다. 본 연구자들의 의견으로는 Oberhammer(1967-68)과 Scharfe(1993)가 이 개념에 대한 가장 진전된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된다.

다음은 『육띠디빠까』 「서문」의 개요이다.

1. 첫 번째 부분 (Prathamam Prakaraṇam)

1.1 첫 번째 챕터 (Prathamam Āhnikam)

1.1.1 서문 (Upodghāṭṭh)

1.1.1.1 서두개송 (Ārambhaslokaḥ)

1.1.1.2 교의서의 요건 (Tantraguṇāḥ)

1.1.1.2.1 수뜨라의 언급 (Sūtropapattiḥ)

1.1.1.2.2 인식수단의 언급 (Pramāṇopapattiḥ)

1.1.1.2.3 추리의 구성요소의 언급 (Avayavopapattiḥ)

1.1.1.2.4 완전무결함 (Anyūnatā)

1.1.1.2.5 의문의 서술 (Saṃśayoktiḥ)

1.1.1.2.6 결정의 서술 (Nirṇayoktiḥ)

1.1.1.2.7 약술 (Uddeśaḥ)

1.1.1.2.8 상술 (Nirdeśaḥ)

1.1.1.2.9 순서 (Anukramah)

1.1.1.2.10 명칭 (Saṃjñā)

1.1.1.2.11 교시 (Upadeśaḥ)

1.1.1.2.12 여타 교의서의 요건들 (Anyatantrayutayaḥ)

1.1.1.2.13 『상까까리까』는 독립적인 교의서임 (Sāṃkhyakārikāyāḥ
Tantrānyataratvam)

III. 번역원칙 및 표기법

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육띠디빠까』 「서문」을 역주하였다.

본고는 앞으로 이어질 『육띠디빠까』 역주작업의 첫 번째 결과물이기 때문에 다음의 원칙들은 이후 수정될 수 있다.

1. 본 연구자들은 편집부의 권고 하에 각주를 제외한 본문에서는 최대한 영문약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각주 부분에서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호를 사용하였고 본고에서 사용된 약호들은 참고문헌과 함께 제시한다.
2. 본고에서 “쪽:줄”의 형태로 제시하는 『육띠디빠까』의 쪽수 및 줄수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베츨러&모테기본을 기준으로 한다. 본문에서 위치정보를 표기할 경우 본 연구자들은 베츨러&모테기본의 『육띠디빠까』를 영문 약어인 YD로 지칭할 것이며 다른 교정본과 비교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 예를 들면 YD_{WM}와 같이, 교정자(들)의 영문 이니셜을 병기할 것이다.
3. 본고에서는 산스크리트 문헌을 번역할 때 흔히 사용되는 꺾쇠[...]를 사용하지 않았다. 꺾쇠 속에는 보통 원문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상 함축되어 있어 보충되어야 하는 내용이 삽입된다. 따라서 꺾쇠를 통해 번역자들은 원문의 내용과 자신의 이해에 따라 삽입한 내용을 구분해서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자들은 번역작업이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작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번역이란 번역자들의 해당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는 행위라는 관점 하에 본 번역자들이—『육띠디빠까』의 저자가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육띠디빠까』의 각 단어, 문장, 문단 등을 읽는데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보를 본문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
4. 본고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되는 산스크리트 단어들이나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개념어들의 경우 번역을 하지 않고 음사하였다. 예를 들면, 상가 철학의 근본적인 개념인 세 가지 구나(guṇa)의 경우, ‘순질’, ‘동질’, ‘암질’이라고 번역하기 보다는 ‘사뜨바’(sattva), ‘라자

스'(rajas), '따마스'(tamas)로 그 음을 옮겨적었다.

5. 현재 국내 학계에서는 산스크리트의 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자들이 특정한 안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 한글로 표기된 산스크리트어 단어들은 어떠한 특정한 체계에 따라 음사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자들이 학습 받은 발음을 옮겨 적으려 노력하였고 별다른 반론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표기의 경우에는 그것을 따르기도 하였다. 학계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공론화하여 추후 체계적인 산스크리트-한글 표기법이 정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IV. 『육띠디빠까』 「서문」(Upodghāta) 역주

1. 첫 번째 부분 (Prathamam Prakaraṇam)

1.1 첫 번째 챕터 (Prathamam Āhnikam)

1.1.1 「서문」(Upodghātaḥ)

1.1.1.1 서두개송 (Ārambhaslokāḥ); YD 1:1-3:5

축복이 있기를. 음. 쉬바(Sīva)신께 귀의합니다. 음.

[0. 직접적 긍정논증(vīta)과 간접적 부정논증(avīta/āvīta)¹¹⁾을 양쪽 상아로

11) 직접적 긍정논증(vīta)은 논증식을 통해서 제시하는 일반적 논법이고, 간접적 부정논증(āvīta) 반대되는 내용의 부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이다. 강형철(2016, 78:각주 8) 참조.

삼아 견해들의 숲에서 유유자적하는 상카 코끼리에 대한 다른 학파들의 비판은 살라끼¹²⁾ 나무수풀과 같이 쉽사리 논파되어 부러질 것이다.¹³⁾

1. 최고의 선인, 햇살과 같은 후광을 지니신 분, 윤회라는 깊은 어둠을 비추는 태양이신 구루¹⁴⁾(guru)께 귀의합니다.

2-4. “진리(tattva)를 알고자 열망했던 바라문 아수리(Āsuri)¹⁵⁾에게 성자(muni)¹⁶⁾께서 세 가지 고통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말씀하신 위대한

12) Bhavabhūti(7-8세기)의 희곡인 *Mālatīmādhava* 9.6; 9.32에서는 코끼리가 이 살라끼(sallakī) 나무의 가치를 쉽게 부러뜨리고, 이를 즐겨 먹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 구절에서는 상카 코끼리에 게 있어서 격파하기 쉽고 연약한 존재로서 비판자들을 살라끼 나무로 비유한다.

13) 본 계송이 『육띠디빠까』 본문에 삽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본문에 포함되는 계송이라면 어디에 즉, 『육띠디빠까』의 첫 계송인 것인지 아니면 아래 6번 그리고 7번 계송 사이에 위치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형철(2016, 77:각주 7, 80-81:각주 13)을 참조할 것. cf. Wezler (1974, 454-455).

14) 여기서 구루(guru)는 상키야 학파의 개조 까빨라(Kapila)를 지칭한다. 다양한 상키야 문헌에서 그는 선천적으로 선(dharma), 지혜(jñāna), 이욕(vairagya), 초능력(aiśvarya)의 4가지를 갖추고 태어났으며, 세상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헤매는 것을 걱정하는 자비심이 강한 인물로 묘사된다. 1000년의 제사를 지내던 바라문 아수리(Āsuri)를 첫 제자로 삼아서 상키야의 교리를 전수했다고 하며, 이들 사제 간의 에피소드는 『金七十論』, *Māṅgharavṛtti ad SK 1* 등에서 소개된다.

15) 까빨라로 시작되는 상키야 학파의 제자의 계보는 『상카까리까』 71의 주석에 등장하는데 각 주석 서별로 서로 다른 명단이 나열된다.

Māṅgharavṛtti: Kapila → Āsuri → Pañcaśikha → Bhārgava, Ulūka, Vālmīki, Hārīta, Devala → Īśvarakṛṣṇa

『金七十論』: 迦毘羅(Kapila) → 阿修利(Āsuri) → 般尸訶(Pañcaśikha) → 褐伽(*Garga) → 優樓佉(*Ulūka) → 跋婆利(*Bhāvāri) → 自在黑(Īśvarakṛṣṇa)

Yuktidīpikā: Kapila → Āsuri → Pañcaśikha → Janaka, Vaśiṣṭha, Harita, Bauddhali, Kairāta, Paurika, Rṣabhaheśvara, Pañcadhikaraṇa, Patañjali, Vārṣaganya, Kaundinya, Mūkādika → Īśvarakṛṣṇa

Jayamaṅgala: Kapila → Āsuri → Pañcaśikha → Garga, Gautama → Īśvarakṛṣṇa

16) 여기서 성자(muni)는 까빨라를 지칭한다.

교의서(mahat tantra)는 너무 방대하여 100년이 걸려도 완전히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현묘한 지성을 지닌 훗날의 성자(muni)들이 생각하시고는, 티 없는 지혜를 지닌 그 분들이 제자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전승된 성스러운 가르침(anuśāsana)¹⁷⁾을 작은 소책자(alpagantha)로 요약하여 편찬하였다.

5. 그런데 그 책에 대한 비판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우주원인(原人, Puruṣa)과 창조신(Īśa) 그리고 극미를 주장하는 자들이며, 절멸론자¹⁸⁾들, 물질주의자들¹⁹⁾ 및 뿌루샤(puruṣa)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자들²⁰⁾이다.

6. 그들(=비판자들)의 주장을 논파하기 위하여 현묘한 지성을 지닌 스승들은 자신들의 교의서(tantra)에 난해한 사유의 밀림²¹⁾을 구축했다.²²⁾

[0. 직접적 긍정논증(vīta)과 간접적 부정논증(avīta/āvīta)을 양쪽 상아로 삼아 견해들의 숲에서 유유자적하는 상카 코끼리에 대한 다른 학파들의 비판은 살라끼 나무수풀과 같이 쉽사리 논파되어 부러질 것이다.]²³⁾

17) *Yogasūtra* 1.1에서도 사용되는 “anuśāsana”라는 단어의 접두어 ‘anu-’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전승된’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강형철(2016, 79:각주 11) 참조.

18) 불교도(Bauddha)를 지칭한다.

19) 유물론자인 짜르와까(Cārvaka)를 지칭한다.

20) 혹은, 변이(vikāra)가 자아(puruṣa)라고 믿는 자들.

21) 이어지는 7-8송의 내용을 감안하면, 이 ‘사유의 밀림이 구축된 교의서(tantra)’란 『상카까리까』의 원형이 되었던 *Ṣaṣṭitantra*(『六十科論』)를 지칭한다. 이 문헌의 명칭은 9-11송에서 제시되는 60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에 기인한다.

22) 이 최초의 전승과정에 관하여 『상카까리까』의 다른 주석서들은 약간 상이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金七十論』(T.54 1262a23-b9)에서는 이 과정을 까뻬라의 제자인 이수리의 가르침을 받은 뽀짜쉬카(Pañcaśikha)가 이를 6만계송으로 펼쳐 적었고, 그것을 70계송으로 압축한 것이 『상카까리까』라고 설명한다.

23) 본 번역이 저본으로 삼고 있는 Wezler and Motegi 에디션은 본 계송을 YD의 첫 계송으로 제시한 후 이 곳에 다시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주 1 참조.

7. 그것(즉, 사유의 밀립)은 진리의 의미에 대해 미혹한 지성을 지닌 제자들이 완전히 숙지하기 힘들다. 그리하여 이슈와라끄르스나(Īśvarakṛṣṇa)는 내용이 축약된 이 논서²⁴⁾를 지었다.

8. ‘70’이라고 불리는 논서(prakaraṇa)가 곧 온전한 교의서(sāstra)이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60가지의 모든 주제(padārtha)에 대한 해석(vyākhy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9-11. 여기서 ① 최초의 원인(pradhāna)이 존재한다는 것, ② 뿌라끄르띠(즉, 최초의 원인)가 하나인 것, ③ 뿌라끄르띠가 뿌루샤의 독존이라는 목적을 가지는 것, ④ 뿌라끄르띠와 뿌루샤가 서로 다르다는 것, 그리고 ⑤ 뿌라끄르띠가 타자(=뿌루샤)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 ⑥ 뿌루샤가 다수라는 것, ⑦ 뿌루샤와 뿌라끄르띠의 분리, ⑧ 뿌루샤와 뿌라끄르띠의 결합, ⑨ 뿌루샤가 독존을 완성한 이후 남은 수명의 존속, ⑩ 뿌루샤가 행위자가 아니라는 것. 이상이 열 가지 근본교리라고 전해진다.

착오는 5종류²⁵⁾, 희열은 9종류²⁶⁾이라고 전해진다. 기관의 무능은

24) 『상카까리까』를 지칭한다.

25) 『상카까리까』 48에서는 다섯 가지 전도를 각각 8闇(tamas), 8癡(moha), 10大癡(mahamoha), 18重闇(tāmisra), 18盲闇(andhatāmisra)로 나누어 62종으로 세분화한다. 반면 *Tattvakaumudī*와 *Jayamaṅgalā*는 『상카까리까』 47의 주석에서 다섯 가지 전도에 관하여 무명(avidyā), 아집(asmitā), 탐욕(rāga), 혐오(dveṣa), 집착(abhiniveśa)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상기 야고대 논사인 Vārṣaganya에 귀속시키는데, 이는 *Yogasūtra* 2.3에서 제시하는 목록과 일치한다. 주석서들의 내용을 참조하면, 8암은 근본원인(pradhāna), 붓디(buddhi), 아함까라(ahaṅkāra), 다섯 가지 미세원소(tanmātra)라는 여덟 가지 원인(prakṛti)으로 환멸할 때 ‘나는 해탈했다’라고 오해하는 것이고, 8치는 여덟 가지 초능력(aiśvarya) 각각에 집착하고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오해하여 해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0대치는 성, 촉, 색, 미, 향의 다섯 가지 감각의 대상을 신(神)의 대상 일 될 경우와 인간의 대상이 될 경우로 양분하여 열 가지로 나누고, 이것들 각각에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18중암은 여덟 가지 초능력과 열 가지 감각대상의 증가에 즐거워하고 손실을 괴로워할 때, 이

28종류²⁷⁾라고 생각되고 있다. 이상은 8종류의 성취²⁸⁾와 함께 60가지 주제²⁹⁾이다.

12. 이 60가지 주제는 순서대로 하나하나의 특징을 밝히는 방식으로 전부 서술될 것이다. 따라서 이 교의서는 뿌루샤와 뿌라끄르띠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13. 이 교의서(SK)는 작은 책이지만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교의서의 모든 요건(tantraḡaṇa)을 갖추고 있다. 최고의 성자(까뻬라)로부터 유래하는 교의서의 영상이 작은 거울에 모두 담겨진 모양이다.³⁰⁾

14. 나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도록 이 책의 주석을 작성할 것이다. 현자들께서는 혹시 주석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

1.1.1.2 교의서의 요건 (Tantraḡaṇāḡ); YD 3:6-8:16

질문: 당신은 여기서 이 책의 주석을 짓고자 한다. 그러나 서두에서 “이 교의서는 교의서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했다.³¹⁾ 교의서의 요건(tantraḡaṇa)

것들 각각에 일어나는 분별(vikalpa)을 말한다. 18盲闇(āṇḡatāmisra)은 중압과 마찬가지로 여덟 가지 초능력과 열 가지 대상에 관계하고, 죽음에 임할 때 이것들을 잃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이 말한다.

26) 9희열(tuṣṡi)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4종(원인, 취득, 시간, 행운)과 외부의 5종의 감각기관의 대상을 포기하면서 생기는 것들이다.

27) 28무능력(aśakti)은 11기관 즉, 5지각기관·5행위기관·마나스(manasa)의 손실과 9희열·8성취에 반대되는 붓디(buddhi)의 17종의 손실이다.

28) 8성취(siddhi)란 사색, 청문, 독송, 세 가지 고통의 제거, 벗을 얻음, 보시를 말한다. 8성취에 대한 주석서들의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승석(2003, 71-76) 참조.

29) 일부 후대 문헌에서는 60가지 주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리스트를 열거하기도 한다. Chakravarti (1951, 117-119) 참조.

30) 다른 주석서에서도 『상카까리까』에 대한 거울의 비유가 등장하지만,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 강형철(2016, 87-93) 참조.

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그 요건은 몇 가지나 되는가?

답변:

“수뜨라(sūtra-)·인식수단(pramāṇa-)·추리의 요소(avayava-)의 언급(-upapatti), 완전무결함(anyūnatā), 의문(śaṃśaya-)과 결론(nirṇaya-)의 서술(-ukti), 약속(uddeśa)과 상술(nirdeśa), 순서(anukrama), 명칭(śaṃjñā)과 교시(upadeśa)로 교의서가 완성된다.”

‘수뜨라·인식수단·추리의 요소’(sūtrapramāṇāvayava-)는 ‘수뜨라와 인식수단과 추리의 요소’를 나열한 것으로 풀어야 한다. ‘수뜨라·인식수단·추리의 요소의 언급’(sūtrapramāṇāvayavopatti)이란 그것들 각각에 대한 언급을 의미한다. 언급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교의서 속에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름 아니다’라는 것은 다르지 않은 의미라는 것이다. ‘언급’이라는 말은 ‘수뜨라의 언급’을 시작으로 하여 세 단어 각각과 결합한다.

1.1.1.2.1 수뜨라의 언급 (Sūtrapapattiḥ)³²; YD 3:20-4:3

질문: 그렇다면 ‘자격을 갖춘 수뜨라의 언급’(lakṣaṇopetasūtrapapatti)이라고

31) 위의 13번 계승을 볼 것.

32) ‘수뜨라의 언급’이라는 항목은 『육띠디빠까』 이전의 텍스트에 존재하는 ‘교의서의 요건’(tantrayukti)에는 등장하지 않는 항목이다. Oberhammer(1967-68)는 『육띠디빠까』가 이미 개념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tantrayukti’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tantraguṇa’를 나열하는 계승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후 ‘tantrayukti’에 포함되는 몇몇 항목들을 “1.1.1.2.12 여타 교의서의 요건들”에서 기존의 용어인 ‘tantrayukti’로 지칭하며 짧게 정의하는데 반해 ‘tantraguṇa’에 대해서는 종종 논의를 길게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육띠디빠까』에 교의서의 요건으로 제시되는 ‘tantraguṇa’는 기존의 ‘tantrayukti’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Nyāya) 전통과 문법학(vyākaraṇa) 전통의 영향 속에서 재구성된 형태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측한다. ‘수뜨라의 언급’과 관련하여서 Oberhammer(1967-68, 607)는 기원 후 초반 인도철학 각 학파 고유의 ‘수뜨라’들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수뜨라’의 형태를 갖춘 것을 독립적인 교의서의 요건으로 간주하게 된 배경이라 짐작한다.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경우 자격을 갖추지 않는 수뜨라도 교의서의 일부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답변: **그렇지 않다. 그 둘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nāntarīyakatvāt).**³³⁾ 왜냐하면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은 애초에 수뜨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자격을 갖춘’이라는 수식어)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질문: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상카까리까』를 수뜨라라고 하는가?

답변: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sūcanāt) 수뜨라이다.**³⁴⁾ 각각의 특정한 대상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즉, 『상카까리까』)은 수뜨라이다. 예를 들면,

“미현현인 원인이 존재한다”(『상카까리까』 16a)

“모든 개별적 사물에는 물리적인 한정이 있기 때문에”(『상카까리까』 15a)

여기에 주장(pratijñā, 宗)과 이유(hetu, 因)가 각각 서술되어 있다. 그 둘(주장과 이유)에 적합한 실례(dṛṣṭānta, 喩)는 논증대상(sādhya, 所立)을 확립할 수 있다. “그 둘(주장과 이유)에 적합한 실례가 이 논증식의 논증대상을 성립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비록 수뜨라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33) Wezler(1974)가 일찍이 지적하였듯이 YD의 저자는 자신의 논지를 우선 함축적으로—주로 명사구문을 사용하여—제시한 뒤 그 함축적인 구절을 풀이하는 식으로 주석을 작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함축적인 구절’은 YD_{WM}에 굵은 글씨체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YD의 주요한 형식적 특성이기 때문에 본 번역문에서도 이를 번역할 때 굵은 글씨체로 표기한다. 본 번역에서는 YD_{WM}에 굵은 글씨체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논지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구절이라 판단되는 경우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함형석(2016, 7-8:각주 4) 참조.

34) YD_{WM}은 본 문장을 굵은 글씨로 표기하고 있지 않지만, 본 문장은 뒤따르는 설명을 명사구문으로 간명하게 제시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굵은 글씨체로 표기되어야 한다.

것(즉, 수뜨라)에 근거하여 나무뿌리, 나무껍질 등등의 구체적인 예들을 본 주 석서에서는 확정하였다.

혹은 외부기관·내부기관을 억제한 수행자가 근본원인 등 갖가지 초감각적 대상에 대해 가지는 인식도 알려주기 때문에 『상카까리까』의 문구는 수뜨라이다.

혹은 “미세하기 때문에 그것(즉, 미현현)은 보이지 않는다”(『상카까리까』 8a)라고 하는 대상을 보여주지 않는 문구도 수뜨라이다. 가령, 수뜨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기도 한다.

“수뜨라는 적은 수의 문자로 구성되며,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핵심을 지니며, 모든 것에 적용되며, 반복하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수뜨라에 정통한 사람들은 안다.”³⁵⁾

‘반복하지 않는다’(astobha)라는 것은 불필요하게 이미 언급한 것을 다시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수뜨라에 대한 정의가 있다.

“짧고, 보여주는 대상이 있고, 아주 적은 수의 문자와 단어로 구성되며, 모든 측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수뜨라라고 현명한 자들은 말한다.”³⁶⁾

35) Nyāyavārttikatātparyāṭīkā 1.1.2에 이와 동일한 목록이 제시된다.

36) 마찬가지로 Nyāyavārttikatātparyāṭīkā 1.1.2에 이와 동일한 목록이 제시된다.

1.1.1.2.2 인식수단의 언급 (Pramāṇopapattiḥ)³⁷; YD 4:5-6

그리고 인식수단은 직접지각 등이며, 그것들은 “바른 인식수단은 직접지각, 추리, 신뢰할만한 증언이다.”(『상카까리까』 4ab), “직접지각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이 포착한 대상에 대한 확정적 판단(adhyavasāya)이다.”(『상카까리까』 5ab)라는 식으로 뒤에서 설명할 것이다.

1.1.1.2.3 추리요소의 언급 (Avayavopapattiḥ)³⁸; YD 4:6-6:11

또, 추리의 요소는 호기심 등의 요소와 주장 등의 요소이다.³⁹ 그 중에서 호기심 등의 다섯 가지 요소는 스스로 이해하기 위한 요소(vyākhyāṅga)이다. 주장 등의 다섯 가지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요소(parapratyāyanāṅga)이다. 뒤에서 이들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37) ‘인식수단의 언급’이라는 항목은 기존의 ‘tantrayukti’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다만 ‘인식 수단’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인 ‘비유’(upamānam)와 ‘부정적 추론’(arthāpatti)이 ‘tantrayukti’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Oberhammer(1967-68. 601-602) 또는 Scharfe(1993, 270)의 표를 볼 것.

38) ‘추리요소의 언급’이라는 항목 역시 기존의 ‘tantrayukti’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39) 추리의 열 가지 요소 중에서 스스로의 이해를 위한 다섯 가지 요소는 (1)호기심(jijñāsā), (2)의문(saṃśaya), (3)목적(prayojana), (4)가능성의 확보(śakyaprāpti), (5)의문의 제거(saṃśayavyudāsa)로서,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문점을 설정하고 추리를 통해서 이에 대한 대답을 얻는 과정을 이룬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다섯 가지 요소는 (1)주장(pratijñā), (2)이유(hetu), (3)실례(drṣṭānta), (4)적용(upasamhāra), (5)결론(nigamana)으로서, 인도논리학에서 논증식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와 동일하다. 이슈바고샤(Aśvaghoṣa 馬鳴)의 저작으로 알려진 『大莊嚴論經』 1권(T.4 259c)에서 『僧佉經』의 설로서 (1)言誓 (2)因, (3)喻, (4)等同, (5)決定이라고 하는 논증의 단계를 소개하는 것이 상카의 추리요소에 관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승거경』(Sāṃkhyasūtra)에 대응될 만한 문헌명은 고전기와 그 이전 상카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Śaṣṭitantra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하지만 이마저도 확정할 수는 없다. 『대지도론』, 『대비바사론』, 『백론』 등에서도 각각 『승거경』의 설이 인용되는데, 이것들이 모두 같은 문헌을 지칭하는 것인지, 혹은 설사 같은 문헌이라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 성립상의 역사적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진 점이 없다.

반론: 『상카까리까』에서 그에 관하여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추리의 요소들은 언급되지 않았다. 즉, 『상카까리까』에서 직접지각 등의 바른 인식수단들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추리의 요소를 각각 나열하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카까리까』가 추리의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만일 “주석가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을 것이다. 설령 수뜨라의 저자(sūtrakāra; 즉, 이슈와라끄르슈나)가 추리의 요소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석가들이 이것들을 정리해 놓았고, 그 주석가들이 우리들의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추리의 요소들이 언급되어 있다는 주장은 합당하다.

그러나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뜨라가 다루는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즉, 수뜨라에도 없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주석가들은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⁴⁰⁾ 따라서 그러한 추리의 요소를 정리하는 행위는 수뜨라가 다루고 있는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답변: 그렇지 않다. 추리의 요소를 나타내는 표식이 있기 때문이다(liṅgāt). 직접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호기심 등의 추리의 요소들이 수뜨라에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말하자면, 『상카까리까』에서 추리의 요소에 관하여 가르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이것(=추리의 요소)들이 『상카까리까』에 존재한다는 증거에 근거하여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이 스승(즉, 이슈와라끄르슈나)은,

“세 가지 고통의 압박이 있으므로 그것들을 제거하는 수단(hetu)에 대한 탐

40) cf. *Mahābhāṣya* vol. I, 12:27, “또한 ‘올바른 말’은 빠니니 수뜨라를 통해서만 생성된다. 그 규칙을 넘어서 어떤 이가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ātaś ca sūtrata eva. yo hy utsūtraṃ kathayen nādo grhyeta.); ‘ātah’라는 독특한 표현에 대해서는 Joshi and Roodbergen (1986), p. 184에 번역되어 있는 Kaiyaṭa의 주석과 각주 780을 참고할 것.

구열(jijñāsā)이 있다.”(『상카까리까』 1ab)라고 ‘호기심’(jiñāsā)⁴¹⁾이라는 추리의 요소를 말한다.

“미현현이라는 원인이 있다”(『상카까리까』 16a)라고 주장(pratijñā, 宗)⁴²⁾을 제시한다.

“개별적 사물이 물리적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parimāṇāt)⁴³⁾”(『상카까리까』 15a)라고 이유(hetu, 因)을 보여준다.

“미세한 몸(liṅga)⁴⁴⁾은 배우와 같이(naṭavat)⁴⁵⁾ 역할을 연기한다”(『상카까리까』 42d)라고 실례(dṛṣṭānta, 喩)를 밝힌다.

“우유의 송아지를 키우는 활동과 같이 근본원인이 뿌루샤를 해방하기 위하여 활동한다”(『상카까리까』 57b'd)라고 적용(upasaṃhāra, 合)한다.⁴⁶⁾

“그러므로 3종류의 기관은 문지기다”(『상카까리까』 35cd)라고 결론(nigamana, 結)짓는다.

41) 여기서는 “jijñāsā”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된 것으로 예증하고 있지만, 『상카까리까』 1ab에 나오는 ‘탐구열’(jijñāsā)은 세 가지 고통을 제거하는 도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정된다. 이는 사실상 해탈에 대한 적극적인 열의로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까뻬라가 진리를 전수할 제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추리의 첫 번째 요소인 ‘호기심’(jijñāsā)은 추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넓은 외연을 지니므로, 여기서는 이 둘을 구분하여 번역하였다.

42) 이 문장이 ‘주장’으로서 성립하는 것은 “이 세계의 모든 개별적 사물(bheda)에는 ‘미현현’이라는 근본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모든 개별적 사물(dharmin)’이 ‘미현현(avyakta)이라는 근본원인을 지니는’(dharma) 것을 통해서 dharma-dharmin 관계를 나타낸다.

43) 탈격이 이것이 이유(hetu)임을 나타낸다.

44) 이 계승에서 ‘배우’로 비유되는 liṅga는 윤회의 주체가 되는 미세한 신체(sūkṣmaśarīra/liṅgaśarīra)를 나타내며, ‘조대한 신체’, 즉 육체를 지닌 인간의 삶은 배우의 ‘배역’으로 비유된다.

45) 여기서는 ‘-vat’라는 접미사가 이것이 예시임을 나타낸다.

46) 여기서는 “upasaṃharati”라는 동사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육피디빠까』에서 추리의 요소를 나열하는 구절에서는 사본에 따라서는 ‘적용’(upasaṃhāra)이라는 용어 대신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upanaya’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스승들의 논서⁴⁷⁾에 있는 논증식의 일반적 논법이 여기서는 의도되지 않은 것으로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증거들에 입각하여 호기심 등 추리의 요소들이 교의서(『상카까리까』)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반론: 존재하는 데도 가르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호기심 등 추리의 요소가 이 논서에 있다고 당신이 생각한다면, “여차한 이유로 스승은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것은 존재한다”는 식으로 교의서에서 그것(즉, 추리의 요소)들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답변: 인식수단에 포함되기 때문이다.⁴⁸⁾ “이것(=추리의 요소)들은 인식수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 이유를 우리는 제시한다. 호기심 등의 추리의 요소들은 인식수단 중 하나인 추리(anumāna)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그것들(즉, 탐구심 등 추리의 요소들)은 그것(즉, 인식수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다른 교의서에 이미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다른 교의서들에서 빈디아바신(Vindyavāsin)을 비롯한 스승들이 이미 설명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스승들의 권위를 우리들은 인정한다. 따라서 호기심 등의 추리의 요소들이 교시되지 않은 것이다.

반론: 그렇지 않다. 인식수단 자체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에 빠지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교의서에서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 추리의 요소가 『상카까리까』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직접지각 등의 인식수단들도 다른 교의서에 교시되어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47) 이 논서는 서두계송(ārambhaśloka)에서 『상카까리까』의 원형이며 ‘스승들에 의해서 사유의 밑받침이 구축된 교의서’인 Śaṣṭitantra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48) 『상카까리까』 4-6을 참조할 것.

“직접지각이란 청각기관 등의 작용이다.”⁴⁹⁾

“추리란 관계(sambandha)에 근거하여 하나의 지각으로부터 나머지를 획득하는 것이다.”⁵⁰⁾

“어떤 분야에 숙달되고,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사람이 그 분야에 관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이란 바로 그러한 사람의 가르침이다.”⁵¹⁾

따라서 이들도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에 빠진다. 다른 교의서에 둘 다 언급되어 있는 경우, 이들 인식수단은 언급하면서 추리의 요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바램일 뿐이지 않은가?

답변: 그렇다면 우선 앞서 말한 내용은 논외로 하자.⁵²⁾ 또한 “다른 교의서에서

49) 이는 바르사간나(Vārṣaṅgānyā)의 정의이다. Frauwallner(1958, 124)와 Steinkellner(1999, 669)가 Jindendrabuddhi의 *Pramāṇasamuccayaṭīkā*에서 추출한 *Ṣaṣṭitantra*의 단편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상가의 직접지각에 대한 정의로 인용된다(*Pramāṇasamuccayaṭīkā* 1장 비평교정본 [Lasic, Krasser & Steinkellner 2005]에서는 152:1).

50) *Nyāyavārttika* 1.1.5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오며, *Pramāṇasamuccayaṭīkā*에서도 발견된다. Frauwallner(1958: 123) 참조. *Pramāṇasamuccayaṭīkā* 2장(2012, 94:4-95-6)에서는 이 구절을 상키야의 추리론으로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논리적 관계(sambandha)를 설명한다. (1) 왕과 하인과 같은 소유물과 소유자의 관계(*svasvāmībhāva*) (2) 우유와 버터와 같은 원형과 변형체의 관계(*prakṛtīvikārabhāva*), (3) 전차와 그 부속품과 같이 서로 조력하는 성질을 지닌 결과와 원인의 관계(*kāryakāraṇabhāvaḥ*), (4) 도공과 물병과 같이 한 쪽이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동력인과 작용의 작용결과의(*nimittanaimittikabhāvaḥ*), (5) 나뭇가지와 나무처럼 부분과 전체를 이루는 소재와 형성물의 관계(*mātramātrikabhāvaḥ*), (6) 한 쌍의 원양과 같은 필연적 공존관계(*śahacāribhāvaḥ*) (7) 뱀과 뭉구스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과 죽이는 자의 관계(*vadhyaghātakabhāvaḥ*). 『옥피디빠까』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적 관계의 종류를 열거하는 내용이 없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는 서술은 발견된다. 예를 들어, YD 180,18 “정신적인 것(뿌루사)와 비정신적인 것(쁘라끄르띠)은 완전히 구분되므로 원형과 변형체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cetanācetanayor atyantabhedāt prakṛtīvikārabhāvānupapatteḥ*.)

51) Frauwallner(1958, 124)는 이와 동일한 구절을 *Pramāṇasamuccayaṭīkā*에서 추출하여 *Ṣaṣṭitantra*의 단편으로 추측하였다. 또한 『상가까리까』 4에 대한 *Sāṃkhyasaptatīrti*의 주석에서 이와 거의 유사한 구절이 발견된다.

설명하기 때문에”라는 것도 논외로 하자. 하지만 “인식수단도 교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결과에 빠지기 때문에”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하겠다.

그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런가? **언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 과하는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책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누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식의 비판을 당하는가? 그러므로 이는 반론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주요한 것이 언급될 때 부차적인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짜이뜨라여, 베어라”라고 할 때, 수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특정한 수단이 없는 한 절단은 할 수 없다. 짜이뜨라는 베는 행위와 베는 도구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직접 지각 등의 인식수단이 언급될 때 그것들과 떼레야 떼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용법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스승(Īśvarakṛṣṇa)께서는 주요한 것들만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것(즉, 주요한 것)과 관련한 부차적인 내용은 그것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이해된다. 예를 들어, “미현현인 원인이 존재한다”(『상카까리까』 16a), “개별적 사물들은 양적 한정이 있기 때문이다.”(『상카까리까』 15a)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⁵²⁾, 이 경우에는 예시(dr̥ṣṭānta)가 없기 때문에 이는 논증(sādhana)으로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스승께서는 “예시가 없는 논증은 증명의 대상(sādhya)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하여, 해설자들이 『상카까리까』를 설명할 때 다른 교의서에 언급되어 있는 뿌리와 나무조각 등의 예시들 또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52) 즉, “인식수단에 포함되기 때문이다”(pramāṇāntarbhāvāt)라고 앞서 제시한 대답은 일단은 논외로 하자.

53) 주요한 것을 언급하였을 때 부차적인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를 말한다.

또한, 추리를 언급할 때 그에 대한 설명이 이미 있었던 것처럼 언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스승께서 “세 종류의 추리가 설명되었다”(『상카까리까』 5b)라고 말한 이 문장이 그러한 경우이다. 어떻게 그 문장이 그러한 점을 알려주는가? 일반적으로 결론(pratyāmnāya)⁵⁴에서는 과거를 표시하는 말로써 이미 말한 것을 다시 언급한다. 그런데 그는 앞서 세 가지 추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⁵⁵

민약 『상카까리까』에서 실제 설명된 적이 있다고 반문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그것(즉, 세 종류의 추리)이 『상카까리까』의 어딘가에서 설명된 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 스승은 그것들이 설명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을 전제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따라서 『상카까리까』가 아닌 다른 교의서에서 설명된 내용도 여기 『상카까리까』의 서술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다.

왜 그것을 알려야 하는가? 그것은 다른 교의서에 이미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의 원천(karmayoni)이나 생기(prāṇa)의 종류 등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⁵⁶ 이에 따라 “다른 교의서에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추리의 구성요소들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앞서 제시한 이유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위에 나온 교의서의 요건 중 하나인 “추리의 요소가 언급되었다”는 말은 타당하다.

54) ‘결론’(pratyāmnāya)은 논증식의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결론 혹은 반복제시를 의미하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인 ‘nigamana’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55) 즉, 스승은 세 종류의 추리를 이미 앞에서 설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세 종류의 추리와 같이 부차적인 것들이 언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6) YD 290,19-21. “질문: 숨(prāṇa) 등의 작용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는가? 답: 그것은 행위의 원천(karmayoni)들로부터 [발생한다]. 위대한 것(mahat)으로부터 방출된 라자스(rajās)는 변형된다. 의도(dhṛti), 신념(śraddha), 지복에 대한 열망(sukhā), 지혜에 대한 열망(vividṣā), 감각적 쾌락의 추구(avividṣā)의 다섯 가지 행위의 원천들은 달걀과 같은 [과정]에 위치한다.” (āha: kutaḥ punar iyaṃ prāṇādivṛtīḥ pravartata iti. ucyate: sā karmayonibhyaḥ. mahataḥ pracyutam hi rajo vikṛtam aṅgasthānīyāḥ pañca karmayonayo bhavanti dhṛtiḥ śraddhā sukhā vividṣāvividṣeti.)

1.1.1.2.4 완전무결함 (Anyūnatā)⁵⁷; YD 6:12-23

완전무결함이란, 교의서의 “주제 전체를 포괄하고 있음”, 즉 “빠뜨림 없이 갖추고 있음”을 일컫는다. 여기서 주제라는 것은 10가지 중심교의와 50가지 관념(pratyaya)들이다. 그 중에서 (1) 근본원인(pradhāna)이 존재한다는 것과 (2) 근본원인이 하나라는 것은 다섯 가지 직접논증(vīta)에 의해서 증명된다. (3) 근본원인과 그 부산물들이 뿌루샤를 위한다는 목적을 지닌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kāryakāraṇabhāva)를 통해서 추리되는 것이다. (5) 뿌라끄르띠의 활동은 타자를 위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함께 작용하는 것은 타자를 위하기 때문이다.⁵⁸ (4) 바로 이를 통해서 정신의 능력(cetanaśakti, 즉, 뿌루샤)이 3구나로 이루어진 것(즉, 뿌르끄르띠)과 다르다는 것이 증명된다. (6) “태어남과 죽음과 기관이...”라는 구절 등으로 순수정신의 다수성이 증명된다.⁵⁹ (7) “순수정신이 근본원인을 보기 위해서”로 시작하는 구문에서 순수정신과 근본원인의 결합을 언급한다.⁶⁰ (8) “잠재력이 소진하여 신체와 순수정신의 분리를 얻을 때”에서 분리를 언급한다.⁶¹ (9) “바른 지를 얻고 나서”라는 구문에서 남은 수명의 지속

57) ‘완전무결함’이라는 항목 역시 기존의 ‘tantrayukti’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58) 『상카까리까』 17a-c. “집합체는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 순수정신은 존재한다.” (saṃghātaparārthatvāt ... puruṣo ’sti). cf. Jayamaṅgalā on SK 17. “saṃhanyata itī saṃghātaḥ. saṃghātaś cāsau parārthaś cetī saṃghātaparārthaḥ. saṃghātatvaṃ hetuḥ parārthatvaṃ sādhyam. iha loke saṃghātabāhyāḥ śayanāsanādayo ye te parārthā dṛṣṭāḥ.”

59) 『상카까리까』 18a-c. “태어남과 죽음과 기관이 각 개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 뿌루샤가 복수라는 점이 확정된다.” (janmamaraṇākaraṇānām pratīnyamād puruṣabahutvaṃ siddham.)

60) 『상카까리까』 21. “순수정신이 [근본원인을] 보기 위해서, 근본원인이 [순수정신의] 독존 (kaivalya)을 위해서, 마치 절름발이와 맹인처럼 둘은 결합한다. 그것(samyoga)에 의해서 [세계의] 창조가 있다.” (puruṣasya darśanārthaṃ kaivalyārthaṃ tathā pradhānasya/ paṅgvandhavadvubhayor api samyogas tatkrtaḥ sargaḥ//)

61) 『상카까리까』 68, “잠재력이 소진하여 신체와 순수정신의 분리를 얻을 때, 근본원인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정지한다. 그 때 순수정신은 필연성(aikāntika)과 절대성(ātyāntika)의 두 가지를 갖춘 독존을 얻는다.” (prāpte śarīrabhede caritārthatvāt pradhānavinivṛtau/ aikāntikam

을 언급한다.⁶²⁾ (10) “그리고 그것(즉, 현현; vyakta)과 정반대이기 때문에”라는 구문에서 뿌루샤의 비활동성을 언급한다.⁶³⁾ 이상이 10가지 근본교의이다.

전도(viparyaya)가 5종류, 기관의 결합에 의한 무능(aśakti)이 28종, 만족(tuṣṭi)은 9종, 성취(siddhi)는 8종이다(『상카까리까』 47).

이것이 50가지 관념(pratyaya)이다. 이것이 60가지 주제이다. 그것들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 완전무결이다.

1.1.1.2.5 의문의 서술(Saṃśayoktiḥ)⁶⁴⁾; YD 6:24-28

의문과 결정을 서술하는 것. ‘의문과 결정’이란 의문 그리고 결정을 말하고 그 둘의 서술이 의문과 결정을 서술하는 것이다.

의문이란 공통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리고 위대한 것(mahat) 등은 그 뿌라끄르띠의 결과물이다. 그것들은 뿌라

ātyantikam ubhayam kaivalyam āpnoti//)

62) 『상카까리까』 67, “바른 지혜를 얻어서 선(dharma) 등의 8가지 bhava가 더 이상 원인이 아니게 되더라도, 바위가 여력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잠재력에 의해서 한동안 신체가 지속한다.” (samyagjñānādhigamād dharmādīnām akāraṇaprāptau/ tiṣṭhati saṃskāraśāc cakrabhramavad dhṛtaśarīrah//)

63) 『상카까리까』 19, “그것(vyakta의 성질)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또 이 순수정신이 증인이고, 독존하고, 중립적이고, 보는 자이고, 비활동자라는 것이 증명된다.” (tasmāc ca viparyāsāt siddham sākṣītvam asya puruṣasya/ kaivalyam mādhyasthyam draṣṭṛtvam akartṛbhāvaś ca//)

64) ‘Tantrayukti’ 리스트를 제시하는 『유태디빠까』 이전의 세 산스크리트 논서(Arthaśāstra, Suśrutasaṃhitā, Carakasāṃhitā) 모두에 ‘의문’(saṃśaya)이라는 항목이 등장한다. 그 중 이 항목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는 Arthaśāstra(AŚ)와 Suśrutasaṃhitā(Suśruta)의 설명은 『유태디빠까』의 그것과 다르다. AŚ와 Suśruta는 모두 “서로 다른 두 경우 모두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문제” 정도로 ‘의문’이라는 개념을 정의한다. cf. AŚ 15.1.32(pt.3, 243:15), “ubhayatohetumān arthaḥ saṃśayaḥ.”; Suśruta, uttarantram 65.32(1005:1), “ubhayahetudarśanam saṃśayaḥ.”

끄르띠와 어떤 측면에서는 다르고, 어떤 측면에서는 같다. (『상카까리까』 8cd)

라 할 때, “그 결과물이 어떤 측면에서 뿌라끄르띠와 다르고 어떤 측면에서 같은가?”하는 의문이 든다.

1.1.1.2.6 결정의 서술 (Nirṇayoktīh)⁶⁵; YD 6:28-7:5

결정이란 특수성을 나타내는 것이다.⁶⁶ 그리고 그것은 2종류이다. 말에 의한 결정과 의미에 의한 결정이 그것이다.

우선 말에 의한 결정이란, 예를 들어, “결과물은 원인을 가진다는 점 등에서 뿌라끄르띠와 다른 성질이며, 세 가지 구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등에서 뿌라끄르띠와 같은 성질이다”(『상카까리까』 10)와 같은 것이다.

의미에 의한 결정이란, 예를 들어 “5미세원소(tanmātra)에 의해서 5조대원소(mahābhūta)가 발생하고, 그것(5조대원소)들은 특성(viśeṣa)을 지닌다고 전해진다.”(『상카까리까』 38bc)는 구문이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5조대원소는 적정, 활동성, 혼미라는 세 가지 속성⁶⁷ 지니기 때문이다.”(『상카까리까』 38bc) 적정, 활동성, 혼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5미세원소는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상카까리까』 38a)

65) Suśruta와 Carakasamhitā는 ‘결정’(nirṇaya)을 Tantrayukti의 한 항목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Oberhammer(1967-68, 608)가 지적하고 있듯 Suśruta의 정의는 『유티디빠까』의 그것과 전연 다르다. Suśruta(uttaratantra 65.26; 1004:11)는 “결정은 그것에 대한 대답”(tasyottaram nirṇayah)라고 하여 ‘결정’ 항목을 “논주의 의견에 대한 논박이 전제된 질문”(ākṣepapūrvakah praśnah)라고 정의된 직전에 제시된 ‘반론’(pūrvapakṣa)항목과의 관련 속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Suśruta는 ‘결정’을 ‘반박’(uttarapakṣa)의 의미로 취하고 있다.

66) cf. NS 1.1.41, “결정이란 주장을 반론을 통해서 검토한 후에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다.”(vimśrya pakṣapratipakṣābhyām arthāvadhāraṇam nirṇayah/)

67) 이것들은 각각 사뜨바(sattva), 라자스(rajās), 따마스(tamas)에 해당한다.

1.1.1.2.7 약술 (Uddeśaḥ)⁶⁸; YD 7:6-9

약술과 상술이란 ‘약술’ 그리고 ‘상술’을 말한다. 이 복합어는 “모든 병렬복합어(dvandva)는 선택적으로 단수처럼 된다”라는 규칙에 따라 병렬복합어가 단수처럼 되는 사례이다.

약술이란 간략한 언명이다. 예를 들어, “이것이 관념의 창조이며, 전도, 무능, 만족, 성취라고 불린다.”(『상카까리까』 46ab)가 그 사례이다.

1.1.1.2.8 상술 (Nirdeśaḥ)⁶⁹; YD 7:10-11

상술은 풀어쓰는 말이다. 예를 들어, “전도는 다섯 가지 종류이다”(『상카까리까』 47ab), “파마스는 여덟 가지 종류이다”(『상카까리까』 48a)등이 그 사례이다.

1.1.1.2.9 순서 (Anukramah)⁷⁰; YD 7:12-15

순서. 순서란 순서에 맞게 주제들의 배열을 교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68) ‘약술’의 경우 『육피디빠까』의 정의와 AŚ 그리고 Suśruta의 정의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두 텍스트 모두 ‘약술’을 “짧은 말” 정도로 정의한다. cf. AŚ 15.1.15(pt. 3, 242:11), “samāsavākyam uddeśaḥ.”; Suśruta, uttaratantram 65.12(1002:16), “samāsavacanam uddeśaḥ.” Carakasamhitā 역시 ‘약술’을 교의서의 요건으로 들고 있다.

69) ‘상술’의 경우에도 『육피디빠까』는 선대의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AŚ와 Suśruta 모두 ‘상술’을 “풀어쓰는 말”로 정의한다. cf. AŚ 15.1.17(pt. 3, 242:13), “vyāsavākyam nirdeśaḥ.”; Suśruta, uttaratantram 65.13(1002:17), “vistaravacanam nirdeśaḥ.” Carakasamhitā 역시 ‘상술’을 교의서의 요건 중 하나로 들고 있다.

70) Oberhammer(1967-68, 611)이 지적하고 있듯이 ‘순서’라는 요건은 이전에 존재하던 ‘나열’(vidhānam)이라는 항목을 계승한 것이다. AŚ 15.1.6(242:1)은 “나열이란 논서가 다루는 주제의 순서이다.”(śāstrasya prakaraṇānupūrvī vidhānam.)이라 적고 있으며 Suśruta, uttaratantram 65.29(1004:8)의 경우에는 “나열이란 주제를 순서대로 진술하는 것이다.”(prakaraṇānupūrvyābhihitam vidhānam)이라 설명한다.

“쁘라끄르띠로부터 거대한 것이 그것으로부터 자의식이, 그것으로부터 열여섯 가지 무리들이 발생한다”(『상카까리까』 22ab)가 그 사례이다.

1.1.1.2.10 명칭 (Samjñā); YD 7:16-27

명칭과 교시. 명칭이란 표시대상을 이해시키기 위한 말이다. 그것은 두 가지 종류이다.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artha)에 근거한 명칭과 그(단어) 자신의 형태(svarūpa)에 근거한 명칭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에 근거한 명칭’은 그 대상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상의 활동에 근거한 것이다. 카스트와 같이 대상의 본성을 포함한 명칭은 지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시킨다. 예를 들면, ‘요리사’, ‘풀 베는 이’ 등의 단어가 그러하다.⁷¹⁾

‘자신의 형태에 근거한 명칭’의 경우에 그것은 단순히 지시대상을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자신의 형태에서만 의미 전달의 도움을 받는 그것은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의미와 관계없이 관습의 힘으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기는 하지만 지시대상을 이해시킨다. 예를 들면, ‘코끼리의 귀’나 ‘말의 귀’와 같은 단어가 그러하다.

선인의 지혜로 모든 원리의 본질을 파악하신 후 그것들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정하신 최초의 선인 세존께서는 ‘자신의 형태에 근거한 명칭’에 속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를 들어, “여기에 변형된 것(vikāra)들이 잠재되어 있다(pradhīyante)”는 뜻이기 때문에 근본원인(pradhāna)라고 하고, “성에서 쓴다”(puri śete)⁷²⁾는 뜻이기 때문에 뿌루샤(puruṣa)라고 한다는 것 등이다.

71) *Mīmāṃsāsūtra* 1.1.5. (Frauwallner(1968), p. 20). “또한 누구든 어떤 일의 행위자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그것(어떤 일)에 의해서 표시된다. 예를 들어, 요리사, 풀 베는 사람 등.” (yaś ca yasya kartā, sa tena vyapadiśyate, yathā pācako lāvaka iti.)

72) *Śatapatha-Brahmana* 13.6.2.1에 puruṣa의 어원을 설명하는 이와 동일한 구문이 있다.

까뻐라께서 그 명칭들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견해를 따르는 스승들도 25 원리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정하는 것에 열의를 가지지 않는다.

1.1.1.2.11 교시 (Upadeśah); YD 7:28-8:1

교시. 교시란,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의 결과를 언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25원리의 학습을 통해서 “나는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⁷³⁾라고 남김 없는, 전도가 없기 때문에 청정하고 순수한 지혜가 생겨난다.”(『상카까리까』 64)

교의서의 요건(tantraguṇa)들이란 이상의 수뜨라의 언급(sūtropapatti) 등을 일컫는다.

1.1.1.2.12 여타 교의서의 요건들 (Anyatantrayuktayah); YD 8:2-8:9

“라는 것이”(iti)라는 말은 교의서의 요건의 종류(prakāra)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다른 종류들도 알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 규정(utsarga), 예외적 규정(apavāda), 부가적 규정(atideśa) 등이 있다.

그 중에서 현현(vyakta)이 “빠라끄르띠와 다른 성질을 지녔다”(『상카까리

73) ‘나’라는 지시어를 부정 하는 세 가지 정형구에 대해서 주석서들의 내용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1) nāsmi : 행위자 혹은 원리(tattva)들로 이루어진 것은 내가 아니다. (2) na me :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 (3) nāham : 원리들 안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하바라타』(Mahābhārata) 12.129.15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절이 상키야의 설로서 소개된다.

까』 8d)고 하는 것이 일반적 규정이고, “혹은 현현은 뿌라끄르띠와 같은 성질을 지녔다”(『상카까리까』 8d)고 하는 것이 예외적 규정이다. 마찬가지로 뿌라끄르띠는 “그것(뿌루샤)과 정반대이다”(『상카까리까』 11d)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규정이고, “그러나 어떤 점에서 뿌라끄르띠는 뿌루샤와 동일하다”(『상카까리까』 11d)라고 하는 것이 예외적 규정이다. “현현은 [모든 순수정신에 향수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비정신적이고, 생산성을 지닌다. 근본원인도 마찬가지로이다.”(『상카까리까』 11bc)라는 것이 부가적 규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의서의 다른 요건들도 여기에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논의(atiprasaṅga)는 주요한 논지(prakṛta)를 흐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다. 교의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tantrayukti)들과의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상카까리까』)이 교의서라는 사실이 확정된다.

1.1.1.2.13 『상카까리까』는 독립적인 논서임 (Sāṃkhyakārikāyāḥ Tantrānyataratvam); YD 8:10-8:16

또한 다른 교의서와 상충하기 때문에 『상카까리까』가 교의서라는 것이 확립된다. 만약 실로 이것(『상카까리까』)이 특정 주제만을 다룬 부록(prakarāṇa)에 불과하다면, 뻘뻘잘리(Patañjali), 뻘뻘다까라나(Pañcādhikarāṇa), 바르사간야(Vārṣaganya) 등이 지은 다른 교의서 가운데 하나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다른 교의서들과 도처에서 상충된다는 것을 뒤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이전의 교의서들의 일부분이기에 『상카까리까』는 부록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다른 교의서들도 마찬가지이다. 이것들(즉, 다른 스승들이 지은 교의서들) 또한 더 이전의 성자들이 지은 교의서의 일부분이 되어 이것들 역시

특정 주제만을 다룬 부록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빠지게 된다. 이것들(즉, 다른 스승들이 지은 교의서들)이 모든 주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독립된(antara) 교의서로 간주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책(『상카까리까』)도 모든 주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독립된 교의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책이 교의서라는 것은 합당하다.

이상으로 「서문」(Upodghāta)을 마친다.

약호 및 참고문헌

- AŚ *The Arthaśāstra of Kauṭalya*, ed. by Gaṇapati Śāstrī, Trivandrum: the Superintendent, Government Press, 1924-1925.
- SK *Sāṃkhyakārikā*; Wezler and Motegi 1998, appendix II.
- Suśruta *The Suśrutasamhitā of Suśruta*, ed. by Nārāyaṇ Rām Āchārya “Kāvyaṭīrth,” Bombay: Satyabhāmābāi Paṇḍurang, 1945.
- YD *Yuktidīpikā The Most Significant Commentary on the Sāṃkhyakārikā* Vol I, Edited by Alberecht Wezler and Shujun Motegi, Sūttgart: Franz Steiner Verlag, 1998.

- 강형철. 2013a. 『상키야와 불교의 찰나멸에 관한 대론 연구 -Yuktidīpikā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3b. 「니야야·상키야의 감관도달설에 관한 몇 가지 논의들」, 인도 철학 38. pp. 151-191.
- _____. 2015. 「바수반두의 찰나멸 논증을 둘러싼 해석상의 문제들 -Yuktidīpikā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인도철학 43, pp. 121-155.
- _____. 2016. 「고전기 이전 상키야 철학에 대한 Yuktidīpikā 저자의 역사 인식」, 인도철학 47, pp. 73-103.
- 정승석. 2003. 「상키야 철학의 수습법」, 한국불교학 33, pp. 67-88.
- 함형석(Ham, Hyoung Seok). 2016a. *Buddhist Critiques of the Veda and Vedic Sacrifice: A Study of Bhāviveka's Mīmāṃsā Chapter of the Madhyamakahrdayakārikā and Tarkajvālā*,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_____. 2016b. 「불교와 미맘사 사이에 끼인 상카의 정체성 -Sāṃkhya-kārikā

제1~2송에 대한 *Yuktidīpikā* 주석에 등장하는 불교도·미맘사학과와의 논쟁 분석], 인도철학 47, pp. 5-33.

近藤 隼人(Kondo, Hayato). 2010. “A Comparative Study of Characteristics of the Perception Theories in the *Yuktidīpikā* and the *Yogasūtrabhāṣya*”, 印度学仏教学研究 59-3, pp. 18-22.

_____. 2011. “Several Affinities between the *Yuktidīpikā* and the *Sāṃkhyatattvakaumudī* in the Context of Perception”, 印度学仏教学研究 59-3, pp. 1127-1138.

_____. 2012. 「Sāṃkhyakārikā第5偈āptaśrutiに対するYuktidīpikāの解釈とその意義」, 印度学仏教学研究 60-2, pp. 247-250.

_____. 2015. 「生死に流転する身体: Yuktidīpikāにおける輪廻主体考」, 印度学仏教学研究 64-1, pp. 283-287.

神子上 恵生[Mikogami, Esho]. 1996. 「Yuktidīpikāにおけるアポーハ説批判」, 『インド思想と仏教文化: 今西順吉教授還暦記念論集』, pp. 159-172.

中田 直道(Nakada, Naomichi). 1965. “Vyākhyāṅga and Parapratipādanāṅga in *Yuktidīpikā*”, 印度学仏教学研究 26, pp. 51-57.

_____. 1970. “Word and Inference in the *Yuktidīpikā*, part 1”, 印度学仏教学研究 18-2, pp. 41-45.

_____. 1971. “Word and Inference in the *Yuktidīpikā*, part 2”, 印度学仏教学研究 19-2, pp. 25-31.

_____. 1972. “Word and Inference in the *Yuktidīpikā*, part 1”, 印度学仏教学研究 21-1, pp. 19-22.

_____. 1975a. 「推論を構成する各要素の検討—サーンキヤカーリカーの注釈書ユクティディーピカー和訳」, 鶴見大学紀要 12-2, pp. 149-171.

_____. 1975b. 「祭祀の規定としてのダルマと社会規範としてのダルマー」論

- 理のとしび』における, 『仏教における法の研究: 平川彰博士還暦記念論集』, 東京: 春秋社, pp. 567-588.
- _____. 1982. 「論理の灯における知識根拠の数にかんする議論—梵文和訳と校訂」, 駒沢大学仏教学部論集 13, pp. 24-37.
- _____. 1983. 「ことばと推論—『ユクティディーピカー』と『ニヤーヤカンダリー』の所説を比較して」, 鶴見大学紀要 20-4, pp. 75-79.
- 有賀 弘紀(Aruga, Kōgi). 1992. 「原質への試み—古典サーンキヤの論証とavīta」, 佛教學 33, pp. 69-89.
- _____. 2000. 「YuktidīpikāとNyāyāgamānusāriṇīの記述についての覚書」, 『空と実在: 江島惠教博士追悼論集』, pp. 431-440.
- _____. 2003. 「到達作用説とサーンキヤ哲学文献」, 『佛教學』 45, pp. 91-111.
- 中井 本秀(Nakai, Honshu). 1981. 「Sāṃkhya派におけるpramāṇa理論の受容形態」, 論集(東北印度学宗教学会) 8, pp. 53-79.
- 村上 真完(Murakami, Shinkan). 1982. 『サーンクヤ哲学—インドの二元論』, 京都: 平樂寺書店.
- _____. 1984a. 「ユクティ・ディーピカー訳註(一)」, 東北大学文学部研究年報 33, pp. 37-69.
- _____. 1984b. 「Yuktidīpikāの写本」, 宗教研究 57-4, pp. 172-173.
- _____. 1987. “Benares-Manuscripts of the *Yuktidīpikā*”, 印度学仏教学研究 35-2, pp. 1-5.
- _____. 1989. 「ユクティ・ディーピカー訳註(二)」, 東北大学文学部研究年報 38, pp. 31-79.
- _____. 1991. 「感官のsāmānya-Jñāna」, 印度学仏教学研究 39-2, pp. 283-289. 5a.
- 茂木 秀淳(Motegi, Shujun). 1978a. 「Yuktidīpikāの研究(I)」, 印度学仏教学

- 研究 26-2, pp. 166-167.
- _____. 1978b. 「Yuktidīpikāの研究(II)」, 印度学仏教学研究 27-1, pp. 50-55.
- _____. 1980. 「Yuktidīpikāの研究(III)」, 印度学仏教学研究 28-2, pp. 81-84.
- _____. 1986. 「因中無果と因中有果(I)」, 曹洞宗研究員研究紀要 18, pp. 94-109.
- _____. 1987. 「因中無果と因中有果(II)」, 曹洞宗研究員研究紀要 19, pp. 29-43.
- _____. 1988. 「因中無果と因中有果(III)」, 曹洞宗研究員研究紀要 20, pp. 41-52.
- _____. 1995. 「Yuktidīpikā写本の検討」, インド思想史研究 7, pp. 19-35.
- _____. 1997. 「Yuktidīpikā カシミール写本の欄外注について」, 印度学仏教学研究 45-2, pp. 82-87.
- 志賀 浄邦(Shiga, Kiokuni)/志田 泰盛(Shida, Taisei). 2011. 「Yuktidīpikā 87,18-97,17(ad SK 6ab) 和訳と注解」, インド学チベット学研究 15, pp. 1-34.
- 渡辺 俊和(Watanabe, Toshikazu). 2008. 「ディグナーガとサーンキヤ学派との論争—プラダーナの存在論証を巡って」, 印度学仏教学研究 57-1, pp. 278-282. 15
- _____. 2011. “Dharmakīrti’s Criticism of Anityatva in the Sāṅkhya Theory”,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39, pp. 553-569. 9
- _____. 2014. “On the Sāṅkhya Proof for the Existence of Pradhāna Criticized by Bhāvivēka”, 印度学仏教学研究 62-3, pp. 216-222. 15
- Bronkhorst, Johannes. 1997. “Sāṅkhya in the *Abhidharmakośabhāṣya*”,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25, pp. 393-400.
- _____. 2000. “The Last Reason for Satkāryavāda”, *Festschrift Minoru*

Hara, Reinbek, pp. 53-62.

_____. 2003. “Review of *Yuktidīpikā*, The Most Significant Commentary on the *Sāṃkhyakārikā*, Crit. ed. Albercht Wezler and Shujun Motegi”, *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153-1, pp. 242-247.

_____. 2007. “On the Nature of Pradhāna”, *Expanding and Merging Horizons*, Wien: ÖAW, pp. 373-381.

Chakravarti, Pulinbehari. 1938. *Yuktidīpikā, Critically edited for the first time from Original Manuscripts* (Calcutta Sanskrit Series No. XXIII), Calcutta: Pulin Bihari Sapkar.

_____. 1951. *Origin and Development of Sāṃkhya System of Thought*, 2nd ed, New Delhi, Mushiram Manoharlal Publishers PVT. LT.(2st ed, 1975).

Chemparathy, George. 1965. “The Testimony of *Yuktidīpikā* concerning the Īśvara Doctrine of Pāśupatas and Vaiśeṣikas”, *WZKSO* 9, pp. 119-146.

Franco, Eli. 1991. “Whatever Happend to the *Yuktidīpikā*?”,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asiens und Archiv für Indische Philosophie*, pp. 123-137.

Frauwallner, Erich. 1958. “Zur Erkenntislehre des klassischen Sāṃkhya-System” *WZKSO*. Bd. II, S. 84-139.

_____. 1968. *Materialien zuiältesten Erkenntnislehre der Karmamīmāṃsā*. Wien: Hermann Böhlhaus Nachf.

Harzer, Edltraud. 2006. *The Yuktidīpikā, A Reconstruction of Sāṃkhya Methods of Knowledge*, Aachen: Shaker Verlag.

- Joshi, S.D. and Roodbergen, J.A.F. 1986. *Patañjali's Vyākaraṇa-Mahābhāṣya, Paspāśāhnika: Introduction, Text, Translation and Notes*, Pune: University of Poona.
- Kang, Sung Yong. 2006. “Die Carakasamhitā in der Geschichte der indischen Philosophie I: Nyāya und Carakasamhitā,”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asien* 50, pp. 143-176.
- Kimball, James. 2011. *The Soteriological Role of the Ṛṣi Kapila in the Yuktidīpikā: The Production and Transmission of Liberating Knowledge in Classical Sāṃkhya*, PhD Thesis,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 Kumar, Shiv & Bhargava, D. N. 1990. *Yuktidīpikā* vol. I, Delhi: Eastern Book Linkers.
- _____. 1992. *Yuktidīpikā* vol. II, Delhi: Eastern Book Linkers.
- Lasic, Horst; Krasser, Helmut; Steinkellner, Ernst eds. 2005. *Jinendrabuddhi's Viśālāmalavatī Pramāṇasamuccayaṭīkā, Chapter 1, Vol. 1: Critical Edition*, Wien: ÖAW.
- _____. 2012. *Jinendrabuddhi's Viśālāmalavatī Pramāṇasamuccayaṭīkā, Chapter 2, Vol. 1: Critical Edition*, Wien: ÖAW.
- Larson, Gerald James & Bhattacharya, Ram Shankar eds. 1989. *Encyclopedia of Indian Philosophies, Vol. IV: Sāṃkhya*,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ucyszyna, Olena. 2016. “Classical Sāṃkhy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Word and Its Meaning”,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44, pp. 303-323.
- Oberhammer, Gerhard. 1965. “On ‘śāstra’ quotations of the *Yuktidīpikā*”, *Adyar Library Bulletin* 25, pp. 131-172.
- _____. 1967-68. “Notes on the Tantrayukti-s”, *Adyar Library Bulletin*,

31-32, pp. 600-616.

- Pandeya, Ram Chandra. 1967. *Yuktidīpikā, An ancient Commentary on the Sāṃkhya-Kārikā of Īśvarakṛṣṇa*, Delhi-Varanasi-Patna: Motilal Banarsidass.
- Raghavan, V. 1954-5. “The *Yuktidīpikā* on the *Sāṃkhyakārikā*: Corrections and Emendations in the text”(Part I), AOR 12, pp. 1-14.
- _____. 1957-8. “The *Yuktidīpikā* on the *Sāṃkhyakārikā*: Corrections and Emendations in the text”(Part II), AOR 14, pp. 1-8.
- _____. 1958-9a. “The *Yuktidīpikā* on the *Sāṃkhyakārikā*: Corrections and Emendations in the text”(Part III), AOR 15-1, pp. 1-12.
- _____. 1958-9b. “The *Yuktidīpikā* on the *Sāṃkhyakārikā*: Corrections and Emendations in the text”(Part II), AOR 15-2, pp. 1-10.
- Scharfe, Hartmut. 1993. *Investigations in Kauṭalya’s Manual of Political Science*,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 Steinkellner, Ernst. 1999. “The *Ṣaṣṭitantra* on Perception, A Collection of Fragments”, *Asiatische Studien I Etudes Asiatiques* 53-3, pp. 667-677.
- Wezler, Albrecht. 1974. “Some Observations on the *Yuktidīpikā*”, *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Supplement II(XVIII. Deutscher Orientalistentag vom 1. Bis 5)*, Wiesbaden, pp. 434-455.
- Wright, J. C. 1999. “Review of *Yuktidīpikā: The Most Significant Commentary on the Sāṃkhyakārikā*. Vol. I, eds. by Albrecht Wezler, Shujun Motegi”,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62(1). pp. 149-151.